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첫 삽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소통·문화·복지·생활·혁신 공간 탄생 기대

무주군이 10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최북미술관 앞) 현장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무주군이 10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 현장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된 행사는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지역에 전세대 이용이 가능한 소통과 문화, 복지, 생활, 혁신의 공간이자 포용의 공간을 조성하고 독서와 교육, 상담, 돌봄, 놀이, 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문화도서관, 사람을 모으고 연결하며 품어주는 공간으로서의 복합문화도서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내년 완공 때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총 사업비 181억 원)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4,500㎡(지하 1

층, 지상 3층) 규모에는 △유아·어린이·일반 자료실과 교육실, 사무실 등을 갖춘 공공도서관(2,000㎡),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입주할 가족센터(1,500㎡)가 들어설 예정이다. △마주침 공간을 비롯한 학습 공간, 마루 공간, 방음 공간 등이 자리하게 될 생활문화센터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책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관을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니 무척 기대가 된다"며 "인근에

미술관, 문학관, 체육센터, 평생교육원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시설도 자리하고 있어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9년 2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날 착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반딧불 한우 배넛소 지원 사업 추진 협력

군, 무진장축산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무주군은 10일 무진장축산협동조합(이하 무진장축산농협)측과 '무주 반딧불 한우 배넛소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은 무주 반딧불 한우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성사된 것으로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진장축산농협 송재근 조합장, 무주군한우협회 김명섭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두 기관은 △안송아지 구입 및 관리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하고 △배넛소의 가족재해보험 가입 및 관리, △반딧불 한우 배넛소 지원 사업 추진·운영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진장축산농협과 맞닿은 손이 반딧불 한우 배넛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배넛소

지원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하는 동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무주군 한우사육 기반을 확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딧불 한우 배넛소 지원 사업'은 생후 6개월령 이상의 암송아지를 군에서 일괄 구입해 대상농가(한우사육 규모 50두 이하)에 입식하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생후 6개월령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암송아지를 당초 지원받았던 두수대로 상환하면 된다. 무주군은 올해 4억 5천만 원을 들여 총 23농가에 110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무주 반딧불 한우 배넛소 지원 사업' 외에도 '고령력 암소축군 조성', '한우 수정란 이식' 등 8개 사업 추진에 총 10억여 원을 투입,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요양·정신재활시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추진

진안군은 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군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요양·정신재활시설 9곳을 대상으로 4차 방문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4차 접종은 11일부터 이날 말까지 3차 약 4주에 걸쳐 진행되며, 대상자는 3차 접종 미완료자 및 4차 접종 미희망자 29명을 제외한 총 269명의 입소·종사자다.

이들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가 순차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의사 및 간호직 공무원 등 총 5명의 접종인력을 투입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와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는 10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다양한 연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건립 논의

진안군, 산림청과 사업 추진현황·다양한 연계사업 의견 나뉨

진안군과 산림청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춘성 군수와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는 10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하 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다양한 연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치유원은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4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본설계와 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8월 동부건설을 실시할 계획·용역 적격자로 선정해 설계를 진행했으며,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산림치유원 본 공사를 진행한다.

진안군은 건담회 자리에서 산림치유원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강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산림청에 요구했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진안군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청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산림청에서도 다양한 지역연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와 관련된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장수군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회용품 없는 날은 군청 직원이 먼저 앞장서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일 하루만은 외부 카페를 이용할 경우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 포장 음식 지양, 종이 서류 최소화 등의 실천을 통해 일회용품 없는 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홍보와 함께 정비구역을 배부하며 캠페인에 앞장섰다.

특히 군은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유관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소 집중 홍보 및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황철현 환경위생과장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군에서 먼저 시작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군민들에게 확대돼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10일 매일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고 홍보하는 출근길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매일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또한 진안군은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규제업소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공공기관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군민들에게 확대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청정환경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진안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유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오는 18일까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

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44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된 차량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오래된 연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5등급 차량은 2월 기준 1,384대이며, 지난해 345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